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직장 윤리

[골 3:22]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하플로테스)[단순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은 주인과 종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리가 그것을 노예제도라고 부른다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 자체는 악이 아니다. 옛 시대에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종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있었고(창 12:16), 욥에게도 종들이 있었다(욥 1:3). 사람이 빛을 많이 졌을 때나,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흔히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는 그 자체보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인류 역사상 노예제도는 많은 폐해가 있었다. 종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학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노예제도는 달랐다. 성경에는 종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었다. 물론 종은 종이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고 자유와 권리의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법을 통해 히브리 종들이 6년간 일한 후에 제7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출 21:2). 또 여종을 취한 주인은 평생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하게 하셨다(출 21:10). 또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출 21:26). 잠언 12:10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히물며 선한 사람들이 종들에게 잔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노예제도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의 관계가 있다.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계약에 의한 지시와 순종 관계이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간에는 약속된 주종의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강제적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 관계이다. 물론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원치 않는다면 또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본문

의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나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본문은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 즉 죄 짓는 일 외의 모든 일을 가리킨다. 그 모든 일은 합리적인 일뿐 아니라 때때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육신의 주인들’이라는 말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조된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상에서 종들에게는 육신의 주인이 있다. 그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순종에는 말대꾸나 말대답이 합당치 않고 단지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종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많은 변명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기회를 보아서 겸손한 태도로 주인에게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기 쉽다. 그래서 나쁜 종이라도 주인이 볼 때에는 일을 잘한다. 그러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종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종이다.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잘해야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성도는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뒷사람이 보는 데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교훈한다. ‘주를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할지 이것저것을 계산하지 않고, 요령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임무,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이 단순함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23-25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 편애함, 불공정함이 없느니라.

좋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합리적인 일이나 무리한 일이나, 죄짓는 일만 빼 놓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듯이, 좋은 주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유업의 상'은 천국에서의 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삶의 현실에서 주 하나님을 섬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피고용인은 피고용인대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우리는 다 세상의 직업에서나 교회의 직분과 직책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그 결과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런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때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의롭고 선하게 일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비록 그것을 은밀히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4:1] 상전들 주인들이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이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은 오늘날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에게 적용된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고행이나 학교 등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인품과 실력과 충실성을 따라 평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일한 대가를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야 한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피고용인들과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할 이유는 하늘에 계신 참 주인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의롭고

선한 자와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공의로 보응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눈기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한다. 그들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섬긴다. 오늘날 직장의 아랫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고용인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주인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는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용주나 직장의 윗사람은 피고용자들과 직장의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그는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되 성취되리되.

일곱 천사들이 가진 일곱 재앙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들보다 더욱 심해진 재앙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성취할 것이다.

[2-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세상에서 대환난 시대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노래하는 모습이라고 본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있다고 본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 봄으로써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출애굽

기 15장에 기록된 노래 제목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들을 위협하던 바로의 군대를 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노래이었다. 물론 신약교회가 부를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어린양의 노래이지만, 그들의 내용은 비슷하다. 신약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각종 시험과 핍박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

그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 받은 우리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의롭고 진실하신 왕이시다. 그는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 그는 불의하며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키시며 구원하신다.

그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이며 특히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악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한다.

[5-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성취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하는 광경을 본 후 앞에 보았던 그 천사들을 다시 보았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이 얼마나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낸다.

그들은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았다. 금띠와 금대접도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위엄성과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연기가 가득하였고 일곱 재앙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효를 구할 길이 없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때가 너무 지났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만 남아 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장차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대환난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들은 그의 진노를 성취할 마지막 재앙들을 가리킨다. 장차 대환난과 극심한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것이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9,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과 악을 이기며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들과 거룩한 심판은 두려운 사실이지만, 승리자들의 노래하는 광경은 대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경건과 부도덕과 음란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참 믿음과 거룩과 의와 선함은 성도의 정상적 삶의 덕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서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수요일 설교 더러운 제물, 깨끗한 제물

[말 1:1-5]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 . .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에도 회복되게 하셨으나, 에서의 산들은 황무케 하셨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붙이셨다. 또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야곱은 공효로 백하셨으나 에서는 공의로 버려두셨다(롬 9:10-16). 에서에게는 악한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회개함이 없었다.

[6-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아, . .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지적하셨다. 구약교회의 성직자들은 부패하였다. 그들의 신앙고백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경배와 섬김이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는 더러운 음식, 곧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흠 없는 제물들을 드리지 않은 것은 제사를 멸시한 것이며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이 그에게 흠 있는 제물들을 드리는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죽일 것이므로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레 1:3, 10; 3:1; 4:3)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악한 행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총독도 그런 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총독보다 못하신 분이신가?

[9-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셨다. 그는 그들이 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단에 드렸고 눈먼 짐승,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은 정성이 없는 악하고 헛된 제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형식적 제사와 헛된 제물과 분향을 지적하셨었다(사 1:11-13).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누가 그들의 헛된 제사를 막기 위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건도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공화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크게 되실 것이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놀랍게도 성취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증거될 것이다. 분향은 하나님께 대

한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고, 깨끗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진심과 정성의 예배를 가리킬 것이다.

[12-13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제사장들은 떡상과 짐승 제물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번폐스럽고 귀찮고 피곤한 일로 여겼고 코웃음하며 찢긴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제사와 제물을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번폐스럽고 귀찮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고 높으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시다. 오늘날에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설교 듣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정성 없이 한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제사장들은 때 가운데 수컷이 있고 또 그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도 흠 있는 것으로 제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행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이며 죄인은 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가 큰 왕이시기 때문이며 또 그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참 경건이 회복되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참된 정성이 없는 형식적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늘날에도 그는 오히려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정죄받은 개인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정성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찬송과 기도 설교 듣기와 헌금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신 6:5; 10:12-13),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요 4:23-24). 그런 예배자에게 복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